

진안홍삼,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2023년 8번째 대한민국 홍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진안홍삼’이 8번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진안군은 18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진안 홍삼제품 공동브랜드인 진안홍삼이 인삼제품 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MBC와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주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고 이를 소비자와 업계에 널리 알리고자 미려한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시상식이다.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인삼제품 공동브랜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안홍삼’이 △최초상도 △인지도 △브랜드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7개 조사항목에서 총합 금산의 경흥, 충남 진성큐, 영주시 황풍정 경기 청정산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으

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안홍삼’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그리고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8번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평균 해발 500m의 고원지대에서 생산한 4~6년근 최상급 진안 수삼을 정제해 만드는 진안홍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수삼을 저온에서 증숙한 후 건조, 숙성하여 만들어진다. 이때 수삼 상태에서는 없던 몸에 유익하고 각종 병에 약리작용이 뛰어난 홍삼 특유의 생리활성 성분이 생성된다.

체력증강, 노화억제, 항암작용, 항 당뇨 간 기능 증진, 증감속 해독 등 10여종의 새로운 성분이 추가되고 수삼에 비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게 큰 특징이다. 또한 진안홍삼은 풍부한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함유해 여느 홍삼 제품보다 최상급 품질을 자랑하고 있음이 밝혀져 지난 2005년에는 전국유일의 홍삼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진안군은 홍삼의 효능연구 및



제품 개발과 진안홍삼의 품질인증을 위해 2008년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홍삼 전문연구기관인 진안홍삼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진안홍삼연구원은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식품검사 등 시험 검사기관으로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홍삼가공품에 대한 유해성분 또는 중금속,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을 성분 검사해 품질인증 사전·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진전성 군수는 “올해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해 소비자들에게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간간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우수한 제품만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여섯 명의 명사 무주에 온다’

군민 평생교육 차원... 분야별 전문강사 초빙 강연 제공

무주군에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이 무주를 찾아 군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20일 이국종 의학박사를 비롯해 주제별 전문 유명강사를 초빙해 2023 반딧불이카데미를 실시한다.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 의학 분야 이국종 박사(4.20, 골의 시작)를 시작으로 소풍 이승재 영화평론가(5.18, 영화로 보는 미친 상상력), 자산관리 연합한 이베스트증권 리태일

사업부 이사(6.20, 엠블리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노하우)가 무주를 찾는다. 또 경제 홍익희 전 세종대학교 교수(7.20, 유대인 어떻게 부와 권력을 쥐게 되었나), 범죄심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9.21, 인간심리 이해를 통한 행복 찾기), 오페라 이기연 오페라연주자 대표(12.7, winter night gala)가 강사로 초빙된다.

모두 진풍생활문화체험관에서 반딧불이카데미가 운영(오후 7시 ~ 오후 8시 30분)되며,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각 분야 명사들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국도 26호선 최우선 반영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창희 청장을 만나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26호선(완주 소안~진안 부귀) 도로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도 26호선의 완주 소안~진안 부귀 구간은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개설된 노선으로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보충해 주어야 할 지역이다. 예산 부족으로 대절토, 급경사, 급커브 구간의 도로로 개설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는 “올해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해 소비자들에게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간간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우수한 제품만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도 26호선의 완주 소안~진안 부귀 구간은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따라 촉박하게 개설된 노선으로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보충해 주어야 할 지역이다. 예산 부족으로 대절토, 급경사, 급커브 구간의 도로로 개설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부남면 금강변 진분홍 국화꽃 ‘장관’

무주군 부남면이 국화꽃을 이루면서 새로운 봄꽃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부남면 대소리 부남면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강변에 활짝 핀 진분홍 국화꽃이 이곳을 지나는 여행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와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군락지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는 등의 주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남면은 금강 변을 따라 조성된 약 20여km의 ‘금강변하살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벚꽃이 지고 난 후에 국화도 꽃이 피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국화도 꽃을 대부분 사람이 흥도화로 잘못 알고 있다. 생소한 이름의 이 꽃은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흥도화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이 국화를 닮은 흥도화의 한 종류다.

국화도화(菊化道花)라고도 부르는데, 국화도 나무에서 4월부터 5월 초 사이에 핀다. 국화도 꽃 군락지는 강변을 따라 약 200m 거리의 오솔길을 가운데 두고 일 양쪽에 식재되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과농가 저온피해 최소화 위해 사후관리를’

장수군, 피해현장 점검·안정생산 위한 현장기술지원 나서

장수군은 최근 저온현상으로 과수 저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당부와 함께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에 나서고 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간 새벽가온이 영하 3.0℃까지(장수읍 기준) 낮아지면서 평년대비 따뜻한 기온으로 개화 시기가 7~10여일 정도 앞당겨진 사과꽃이 저온에 직접 노출돼 상대적으로 저온피해가 크게 발

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꽃이 피기 시작한 과수는 저온에 특히 취약해 저온피해를 받으면 입술과 수술이 고사해 검게 변하고, 작과가 안 될 뿐 아니라 향후 기형과가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가 발생한 과원은 적화, 적과 작업을 늦춰 작과가 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마무리 열매숙기 등 기형과 등의 장애가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에 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또한 인공수분을 통해 늦게 핀 꽃까지 최대한 결실을 맺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군은 농가들에 저온피해 농작물 관리 요령에 따라 저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장은 “매년 이상 기후로 저온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한 수정물, 서리피해방지제 등 지원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2023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설명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장진원)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18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본격 사업을 알렸다.

이날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가족센터 장진원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는 고향나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20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고향나들이 확정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장기 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

해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보다 7가정이 늘어난 20가정을 지원하게 됐으며, 계속해서 지원 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향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다문화가족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이 기대된다.

황인홍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대상을 늘려 20가정을 보

내드릴 수 있게 됐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현재 진행 중인 복합문화도서관 내 가족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무주살이가 보다 편하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된 다문화가족은 원하는 시기에 모국에 방문하게 되며, 7~30일 정도를 머무르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임사회 국정질문

“노후화된 군 관리 시설 환경 개선을”

손동규 진안군의원
“군민 안전문제 우려”



있는 98개소의 건물의 경우 현재 2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25%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군 관리 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안전문제 우려를 전하며, 새로운 시설의 신축보다는 기존의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및 노후 배관 등을 교체하는 등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후화된 군 관리시설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손동규 의원은 “우리 진안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진안군수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마쳤다.

“지덕권 사업 포함 인근 인프라 구축을”

이우라 진안군의원
군 산림사업 전반 질문 펼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이어서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돌봄 서비스의 부족을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우라 의원은 산림의 생태관광과 우리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연계돼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지역 특성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 △진안군원형 트래킹 코스 개발 △지방정원 인프라 구축과 국가정원로의 확대를 위한 충분한 사업대상지 선정 등 ‘진안군 산림사업 전반에

장애훈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우라 의원은 “향후 우리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관광자원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지역권 사업 등을 비롯한 인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역권 산림치유원 및 진안군외 지방정원 사업의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진안군의 공격적 정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린다”며 질문을 마쳤다.

“저출산 해소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 필요”

이미옥 진안군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 제기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읍과 남원에 건립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언급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인구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은 18일 제283회 임사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 후 지원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국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서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아기 육조, 아기담요,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검토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인구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이미옥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직 직책 주재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출산·양육 정책을 준비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로타바이러스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생후 2~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기존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선택 접종으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수지와 상관읍이 전국의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종시기는 1차 접종은 생후 15주가 되기 전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최대 생후 8개월이 되기 전에 모든 차수의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수에 따라 △로타릭스(1가, 2회 접종) △로타텍(5가, 3회 접종)으로 구분되며, 두 개 중 한 종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으나 두 백신 간 교차접종은 안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운영

무주군은 도시민들의 무주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무주군 안성면 봉평로 41-2에 위치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단기(최대 3일) 거주하면서 무주군의 귀농귀촌 정보취득 및 방향 설정, 현지탐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지상 2층 115.47㎡ 규모에 관리실 1실, 세미나실 1실, 생활실 2실을 갖추고 있으며, 1실에 최대 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9일까지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올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귀농·귀촌 교육 2시간 이상 이수자 중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며, 이용 희망 7일 전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객은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에서 군에서 선별한 멘토와 일정을 수립해 무주군 영농·정착 컨설팅 및 밭집·토지 정보제공 등 무주군 탐색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